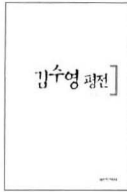


눈길끄는

우리시대의 평전

《김수영 평전》 최하림 지음 | 실천문학사 | 432쪽 |
값 12,000원



20년 만에 증보된 김수영 평전. 아포리즘 '시와 말과 자유'를 포함해 4백여 쪽에 달한다. 김수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모친의 증언에 많은 비중을 둔 것도 특징. 또한 만주 길림에서 함께 연극활동을 했던 임현재, 거제포로수용소 동료 장희범, 서강에서 이웃에 살았던 김경옥 등의 증언이 보강되어 김수영의 삶과 문학세계를 더욱 자세히 밝혔다.

《이상 평전》 고은 지음 | 향연 | 382쪽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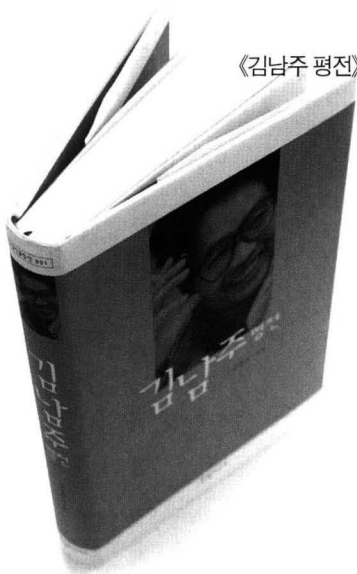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이상의 삶과 문학을 조명했다. 이상에 대한 일방적인 찬사나 혹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정한 열정으로 이상을 보고 있다. 저자인 시인 고은은 이상을 행복한 파산자, 문단적 예외자, 자기도취의 예고리스트, 가혹한 일상 혐오자, 불가결의 예술가, 비극의 피지배자 등으로 부르며 이상의 일대기를 담아낸다.

《인간으로 살고 싶다 -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이상경 지음 | 한길사 | 524쪽 | 값 12,000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화가이자 문필가였던 나혜석을 종합적으로 연구, 평가했다. '나혜석 전집'을 엮은 바 있는 저자는 신문기사, 주변 인물의 기록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나혜석의 연대기를 재구성했다. 도쿄 유학, 김우영과의 결혼, 세계일주 여행, 최린과의 연애사건, 이혼 등 평탄치 않았던 삶을 진솔하게 내보인다.

《김남주 평전》 강대석 지음 | 한얼미디어 | 414쪽 | 값 15,000원



감옥에서 보내 온 시가 복사본으로 나돌았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낭송되었고, 노래로 만들어져 불리기도 했던 김남주의 시. 암울했던 시대, 그의 시만큼 강한 무기는 없었다. 그의 시는 가장 선동적인 격문이었고 투쟁적인 구호였다. -민족시인 김남주 해남기념사업회
영원한 '혁명시인'으로 불렸던 김남주 시인의 평전이다. 민주화 투쟁을 위한 대학입학, 시를 쓰는 일로 만족할 수 없었던 혁명운동가의 삶, 투옥생활의 후유증과 지병으로 숨을 거두기까지의 김남주 생의 궤적을 면밀히 더듬고 있다. 책은 김남주 생의 궤적을 짚는 한편, 김남주 문학과 사

상이 지나는 특성까지 심도 깊게 파헤친다. 저자 강대석은 《김남주 평전》이 '철학적 전기'임을 자부하는데, '김남주에게 있어서 삶과 예술과 세계관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을 분리하여 어느 한쪽만을 기술하는 것은 본질을 비켜가는 일이 될 것'이라며 철학적 전기의 의미를 밝힌다. 제1부 '격동의 삶', 제2부 '투쟁의 무기'로 구분된 책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간 시인의 삶을 추적하는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진중한 물음까지 독자에게 던진다.

《김사랑 평전》 안우식 지음 | 심원섭 옮김 |
문학과지성사 | 374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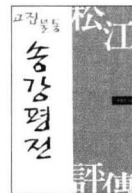
재일 교포인 저자가 한국과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으고 검증해 복원해낸, 불행한 천재작가 김사랑의 일대기. 일제 암흑기에 태어나 당시 조국의 운명처럼 불확실한 삶을 살다가 끝내는 행방불명되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불우한 작가의 삶이 담겨있다.

《영원한 대자연인 이백》 안치 지음 |
신하운 외 옮김 | 이괄리오 | 448쪽 | 값 16,000원



반평생을 이백 연구에만 몰두한 저자 안치가 기이한 상상력과 자유분방한 행동, 그리고 이단아적인 기질을 유감없이 내뿜었던 이백의 일생을 엄밀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현했다. 호방한 기상, 강렬한 서정으로 낭만적인 슬픔을 노래한 이백의 주옥같은 시들과 함께 이백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고집불통 송강 평전》 박영주 지음 | 고요아침 |
356쪽 | 13,000원



송강 정철의 일대기에서 큰 전환점이 된 사건과 시기별 특징들을 가려 살폈다. 그의 행적을 통해 다채로우면서도 복합적이었던 송강 정철의 인간적인 풍모를 확인할 수 있다. 책은 송강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통해 위대한 문인으로서의 자취를 더듬는 한편, 그가 평생을 두고 추구한 이념과 가치 등을 역사적 동향들과 함께 살펴본다.

《장강을 떠도는 영혼》 선정규 지음 | 신서원 | 368쪽 | 값 12,000원



고려대 중문학과 교수이며 한국 중국어학회 회장인 저자가 초사춘 辭의 창시자로 알려진 굴원과 초사에 대한 연구를 묶어 펴냈다. 1장에서는 난세 속에 살아가던 굴원의 삶과 시인의 시대, 조국과 문화에 대해 살펴봄, 2장에서는 초사의 대한 특징과 그 시편들을 해설했다. 3장에서는 굴원이 중국문화에 끼친 영향을 풀어나간다.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박홍규 지음 | 미토 | 528쪽 | 값 16,000원



'불안과 고독의 작가, 절망과 소외의 작가'로 알려진 카프카를 새롭게 해석하는 평전이다. 저자는 카프카를 사회의 권력지배 문제를 철저히 해부하고 그 추악한 면을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작가라고 평가한다. 책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작가라는 관점에서 카프카의 어린시절부터 성장기, 약혼녀 펠리체와의 파혼 등을 살펴본다.

《어떤 인생》 서기원 지음 | 명상 | 288쪽 | 값 8,000원



축구전문 캐스터인 저자가 한국 축구계의 대부라 불리는 김용식의 일대기를 썼다. 책은 일제시대에 태어나 고난과 갈등을 극복하고 한국 제일의 선수이자 지도자가 된 김용식의 인생역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일제 치하부터 6·25를 거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는 한국축구의 흐름도 볼 수 있다.

《체 게바라 평전》 장 코르미에 지음 | 김미선 옮김 | 실천문화사 | 684쪽 | 값 12,000원



세계적인 전기 작가 장 코르미에를 통해 되살아난 체 게바라의 일대기. 사르트르가 '우리 세기에서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평가한 체 게바라는 열정이 사라진 시대의 이상으로 직립했다.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한 중류 가정에서 태어난 체 게바라는 의학을 공부한 엘리트였지만, 남미여행을 통해 질병의 치료보다 세계의 모순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혁명에 뛰어들게 된다. 1956년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시에라마에스트라 산맥을 중심으로 게릴라활동을 벌인 체 게바라는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 콩고혁명을 위해 투신하는가 하면, 1년

뒤 남미혁명에 불을 놓기 위해 볼리비아로 숨어들기도 했다. 책은 정치가로 남지 않고 평생을 혁명가로 떠돌다 39세 이른 나이에 죽은 체 게바라의 혁명적 삶을 가감 없이 내보인다.

저자는 체 게바라의 부모와 친지 등 그와 관계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잡문과 편지 등을 모아 체 게바라의 생을 완벽히 복원하려 애썼다. 좀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체 게바라의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모차르트 평전》 필립 솔레르스 지음 | 김남주 옮김 | 효형출판 | 414쪽 | 값 13,000원



전방위 예술인 필립 솔레르스가 절대적 재능과 수수께끼같은 개성의 소유자 모차르트의 생을 서술했다. '레퀴엠'을 통해 천재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책은, 이성과 충동 사이의 적절한 음을 찾아낸 모차르트를 치밀히 기록한다.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모차르트의 주요 오페라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곁들였다.

《김시습 평전》 심경호 지음 | 돌베개 | 708쪽 | 값 28,000원



수많은 일화와 전설이 뒤따르는 인물 김시습. 김시습이 남긴 시문집과 저술,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의 문집과 저술 등을 집대성하여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연보와 각주, 참고문헌 등을 포함해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은 김시습의 천재성과 인간적 매력뿐 아니라 그의 고뇌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다.

《김재준 평전》 김경재 지음 | 삼인 | 240쪽 | 값 12,000원



한국의 대표적 구약학자이면서 민주화 운동과 독재정권에 대항했던 김재준 목사의 평전. 김재준이 말년에 집필한 자서전 《범용기》를 기본자료로 삼고, 20권 분량의 전집과 연구논문 및 에세이, 그리고 가족이나 후학들과의 인터뷰내용을 자료로 활용했다. 김재준 목사가 한국 개신교사 및 사회사 속에서 갖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마호메트 평전》카렌 암스트롱 지음 | 유혜경 옮김 | 미다스북스 | 640쪽 | 값 18,500원



마호메트에 관한 35,000여 건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여러 종류의 하디스(마호메트 언행록) 중에서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료만을 취했다. 책은 마호메트 일대기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오리엔트 지방의 신화와 종교적 토양, 기독교 사회상 등을 종합적으로 섭렵하면서 예언자의 탄생과 역할을 살핀다.

《민족의 큰 사상가 함석헌 선생》함석헌기념사업회 엮음 | 한길사 | 490쪽 | 값 18,000원



종교사상가이자 역사가, 그리고 민중운동가로서 한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함석헌의 평전이다. 민족의 단위를 넘어 인류에 기여한 사상가, 세계정부가 세워지는 미래를 내다보는 철학자로서 이론과 실천의 합일점을 끝없이 모색했던 함석헌의 사상은 '협력형 통치'를 여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 평전》프랜시스 윈 지음 | 정영목 옮김 | 푸른숲 | 588쪽 | 값 20,000원



생활의 빈곤함과 정신의 풍요로움, 마르지 않는 유머와 광기 어린 편집증, 문학적 감수성과 과학적 엄정함,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 등 그의 삶의 구체성을 이해하지 않고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이해될 수 없다. 허약한 인간의 모습과 시대의 모순을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그 모순에 대해 처절하게 투쟁한 거인의 삶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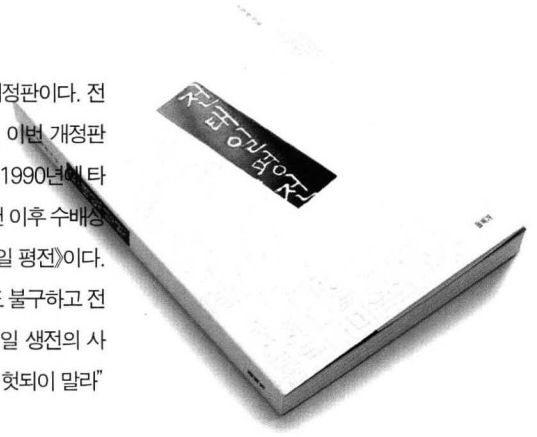
《전태일 평전》조영래 지음 | 돌베개 | 320쪽 | 값 9,000원

척박한 노동현실을 분신항거로 폭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출발을 가져온 청년노동자 전태일의 삶과 투쟁사가 담긴 우리시대의 고전이다.

'어린시절'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 '비보호의 조직' '전태일 사상' '투쟁과 죽음' 등 전체 5장으로 구성된 책은 전태일의 생을 추적하는 한편, 1960~1970년대 부조리한 노동현장의 실체를 낱알이 폭로한다. 노동법에 눈을 뜨게 되면서 평화시장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의 길로 접어드는 전태일 생의 정점이 감동적인데, 삶과 투쟁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 방향, 현신적 인간애 등을 통해 '인간 전태일'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책은 지난 1991년 1차 개정판에 이은 2차 개정판이다. 전태일기념사업회와 저자를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판에서는 저자를 전면에 내세웠다. 책의 저자는 1990년에 타계한 변호사 조영래 씨. 1974년 민청학련사건 이후 수배상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쓴 책이 바로 《전태일 평전》이다. 당국의 탄압, 여러 차례의 검문, 기택수색에도 불구하고 전태일의 가족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전태일 생전의 사진들을 본문 속에 넉넉히 담았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했던 마지막 전태일의 육성이 전해진다.



《간디 평전》루이스 핏서 엮음 | 내일을여는책 | 광영두 옮김 | 146쪽 | 값 13,000원



간디의 말과 글을 인용해 마치 간디가 직접 술화하는 것처럼 쓴 평전이다. 간디는 1925년 <영 인디아>에 자서전을 연재하며 1927년 상권을, 1929년 하권을 출간했다. 따라서 간디는 1920년대 초반의 이야기만을 했을 뿐, 1948년 암살되기까지의 이야기는 직접 하지 못했다. 이 책은 그 시기의 미흡한 부분까지 가감 없이 담아냈다.

《박종철 평전》최인호 지음 | 박종철출판사 | 204쪽 | 값 8,000원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암울한 한국 현대사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사라졌던 청년의 생을, '어린 시절', '1984년', '1985년', '1986년' 그리고 '마지막 투쟁'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전태일 평전》이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한 노동자를 보여주었다, 책은 1980년대의 한국 사회,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한 대학생들을 보여준다.

《히틀러 평전》요아힘 C. 페스트 지음 | 안인희 옮김 | 푸른숲 | 694쪽 | 값 25,000원



히틀러를 보는 저자의 관점이 흥미롭다. 히틀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시대의 요청을 구현한 인물이며, 권력만을 추구한 공허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집요하게 자신의 이념을 추구한 인물이라는 것. 히틀러 이념의 핵심은 반유대주의와 생존공간정책, 즉 게르만족을 위한 세계 제국 건설정책으로 요약된다.

《사담 후세인》 김동문 지음 | 시공사 | 326쪽 |
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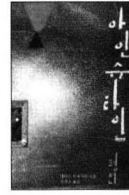
'전쟁광', '걸프전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불리는 사담 후세인. 그러나 그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편향된 시각을 배제하고 중동과 현지에서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 사담 후세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베일 속에 가려졌던 사담 후세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등이 국제 정세와 맞물려 서술된다.

《피터 드러커 평전》 이재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 | 302쪽 | 값 9,800원



피터 드러커는 아흔이 넘는 지금도 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 책은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통해 피터 드러커의 개인적인 삶을 조명하고 있다. 경영학자로서의 위상뿐 아니라 사회를 관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사유하는 폭넓은 지식인으로서 피터 드러커를 소개한다.

《아인슈타인 평전》 데니스 브라이언 지음 | 승영조 옮김 | 북폴리오 | 888쪽 | 값 3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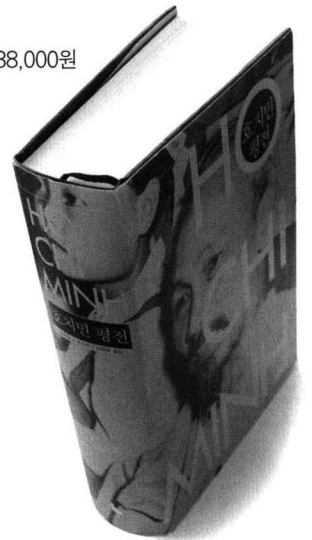


아인슈타인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비서 헬렌 두카스, 친구 오토 네이선 등의 증언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실을 발굴했다. 아인슈타인의 묘한 천성과 꿈을 서술하는 한편, 지진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어린 시절의 아인슈타인의 모습도 보여준다. 데니스 브라이언이 20년에 걸쳐 집필했다.

《호치민 평전》 윌리엄 J. 듀이커 지음 | 정영목 옮김 | 푸른숲 | 972쪽 | 값 38,000원

베트남의 혁명가이자 정치가며 구베트남민주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호치민의 평전. '반은 레닌, 반은 간디'라는 평가를 얻는 호치민은 인간해방을 열망한 공산주의자이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민족주의자이며, 국제정치적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냉철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유학자의 아들로 태어난 호치민은 21세에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활동을 시작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쉰 번이나 이름을 바꿔가며 혁명을 배운 그는 베트남의 초대주석이 되어 분열된 동료들을 통합시키는 리더

십을 발휘한다.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도 호치민의 이러한 비전과 지도력에 있었다. 《호치민 평전》은 세계적인 베트남 전문가 윌리엄 J. 듀이커가 30년에 걸쳐 완성시킨 역작이다. 《베트남 역사》의 저자 스탠리 카노는 "꼼꼼한 조사, 심오한 통찰, 유려한 문체에 바탕을 둔 이 전기가 통해 마침내 20세기의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하고, 논란 많고, 영향력 있는 인물의 신비가 벗겨졌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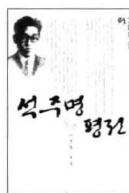


《파브르 평전》 마르틴 아우어 지음 | 인성기 옮김 | 청년사 | 312쪽 | 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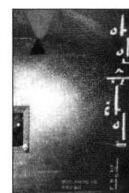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파브르는 곤충학뿐 아니라 식물학, 거미학, 균학, 기계공학, 요리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처럼 과학전반과 다양한 분야에서 진리를 탐구했던 학자 파브르의 진면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책은 소위된 아이들의 다정한 선생님으로서의 모습,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즐겼던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전해준다.

《석주명 평전》 이병철 지음 | 그물코 | 350쪽 | 값 12,000원



나비학자 석주명의 평전이다. 석주명은 평생 75만 마리가 넘는 나비를 채집하고 측정하여 생물분류학상 새로운 학설을 제창했고, 외국인들이 독점했던 한국산 나비의 계통 분류를 완성한 인물. 책은 다양한 자료와 증언, 석주명의 저술을 토대로 충실하게 그의 삶을 복원해 내고 있다. 부록으로 나비 이름 유래기를 정리한 것도 눈에 띈다.

《히딩크 평전》 마틴 메이어 지음 | 크리스 존슨 옮김 | 안순자 옮김 | 현암사 | 312쪽 | 값 9,500원



네덜란드인 저자가 쓴 히딩크 평전이다. 히딩크의 고향인 바르세벨트 현지를 답사해 그의 가족과 친지, 동료들을 두루 인터뷰했다. 또 지금까지 소개된 유럽신문, 잡지의 관련 인터뷰 기사 등을 모두 취합해 구성했다. 책은 리더십에 관심을 두기보다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주목해 히딩크의 인간적인 면모를 숨김없이 드러냈다.